

GWANGJU

FOOTBALL CLUB

July 2014 / NO. 04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NEWS

광주 FC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된다!
우승을 위해 광주 FC에 합류한 4인방은 누구?
광주 FC의 우승 도전, 여름과 파비오를 주목하라!

INTERVIEW

중원의 사령관 이찬동! 광주를 책임질 미래
광주의 싸움닭 이찬동, "팀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요!"

Next Home Match



광주 FC vs 수원 FC

07월 19일(토) 19:00



광주 FC vs 부천 FC

07월 27일(일) 19:00



광주 FC vs 충주 험멜

08월 16일(토) 19:00



Hyundai Oilbank K LEAGUE CHALLENGE

※ 이 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FC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된다!



올 시즌 막강한 선수 영입을 단행한 광주 FC는 우승이라는 목표로 2014시즌을 출발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초반 10경기에서 3승 2무 5패의 성적을 거두며 자존심을 구겼다.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탓에 호흡이 완벽하지 않았고, 수비 조직력과 골 결정력에 문제점을 드러내며 힘을 쓰지 못했다. 여기에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이 속출해 남기일 감독대행은 베스트 멤버를 짜는데도 애를 먹었다.

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광주는 부활의 날갯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은 16라운드 대구 FC와의 홈 경기부터다. 6월 30일(월) 대구 FC를 홈으로 불러들인 광주는 임선영의 선제골과 김호남의 결승골로 7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다. 이 기세를 이어가 17라운드 고양 Hi FC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4-2 대승을 거두며 순위를 5위까지 끌어 올렸다.

고양전 승리는 광주에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는 광주의 올 시즌 첫 연승이었다. 그동안 광주는 승리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성적으로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이 연승을 통해 가슴 속에 승리 마인드를 새겨 넣었다. 두 번째는 올 시즌 첫 원정 경기 승리였다. 고양전 승

리 직전까지 광주는 7차례 치러진 원정 경기에서 3무 4패의 부진을 겪었다. 하지만 이 승리를 통해 원정 징크스 타파와 상위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포석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는 광주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골 결정력 문제가 해소됐다. 이날 광주는 이종민, 임선영, 파비오, 이찬동이 골을 터트리며 올 시즌 광주의 한 경기 최다 득점인 4골을 성공시켰다. 앞서 치른 16경기 동안 2득점 3회, 1득점 9회, 무득점 4회를 기록했던 광주는 마침내 기다리던 폭발적인 공격이 터지며 웃을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들의 자신감이 살아나 광주만의 축구를 펼치고 있다. 11명의 선수들은 적극적인 수비가담부터 공격 빌드업과 정까지 모두 함께 진행하며 하나의 팀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비록, 18라운드 안산 경찰청과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배하며 연승행진을 마감하긴 했으나 광주가 보여준 축구는 승리에 대한 의지와 투혼이 있었다. 이에 광주는 화려한 부활을 통해 본격적인 목표를 향한 전진을 외치고 있다.

우승을 위해 광주 FC에 합류한 4인방은 누구?

광주 FC가 우승으로 가는 길목을 탄탄히 만들기 위한 포석을 꾸렸다. 광주는 지난 10일(목) 새롭게 팀에 합류한 외국인 공격수 디에고를 비롯해 미드필더 박현, 조용태, 김태연 등 네 선수의 영입 소식을 발표했다. 네 선수의 합류로 광주는 치열한 주전 경쟁과 함께 공수에 탄탄한 전력을 얻었다. 이 영입을 발판 삼아 상위권 도약을 넘어 우승까지 바라보는 광주엔 위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선수이고 어떤 역할을 해낼지 정리해 보자.



디에고 (No. 36 | FW | 181cm, 80kg)

디에고는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다. 180cm가 넘는 체격 조건을 가졌고 브라질, 노르웨이, 카타르, 바레인, 스웨덴 등 여러 리그를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이미 6월말부터 팀 훈련에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광주의 약점인 골 결정력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다. 광주는 임선영이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며 분전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골잡이는 아니기 때문에 디에고가 이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 (No. 37 | MF | 175cm, 67kg)

반가운 얼굴이다. 박현은 2011년 광주의 창단 멤버로 프로 데뷔해 지난해까지 40경기에서 6골 5도움을 기록한 있다. 올해 초, 내셔널리그 천안시청에서 뛰다 반년 만에 다시 친정팀 광주로 복귀했다. 개인 드리블 돌파와 영리한 움직임이 장점으로 광주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태 (No. 30 | MF | 180cm, 69kg)

2008년 프로에 데뷔한 조용태는 K리그에서 9시즌째 뛰고 있는 베테랑 공격수다. 수원 삼성에서만 5시즌 동안 54경기를 출전했을 정도로 출중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고,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까지 겸비해 김민수, 김호남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의 노련미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 광주엔 호재다.



김태연 (No. 32 | MF | 182cm, 72kg)

해외 리그를 경험한 엘리트 미드필더다. 어릴 때부터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지내며 잠재력을 끌어 올렸고, 프랑스 FC 메츠와 일본 J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 받았다. 국내 무대에서도 2011년부터 대전에서 3년 동안 활약하며 79경기를 소화했다.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공수 조율과 함께 수비력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름과 파비오를 주목하라!

광주 FC는 지난 7월 5일(토) 고양중합운동장에서 고양 Hi FC와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4' 17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광주의 4-2 대승이었다. 시즌 첫 2연승을 기록한 광주는 단숨에 리그 5위로 뛰어 올랐고, 시즌 첫 원정 경기 승리라는 기쁨도 누렸다. 이와 함께 광주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바로 여름과 파비오의 시즌 첫 공격포인트 기록이었다. 침묵하고 있던 이들이 공격포인트를 올리자 광주의 승리로 이어졌다. 특히 파비오의 K리그 데뷔골을 여름이 도왔다. 두 선수는 서로를 도우며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낸 만큼 광주가 우승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두 선수를 주목해야 한다!



파비오는 올 시즌 광주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로 개막 직전부터 많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파비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부상을 당하면서 재활에만 몰두했다. 외국인 선수가 낯선 한국 땅에 들어와 음식과 기후에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기까지 치르지 못하니 그의 스트레스는 상당했다. 더군다나 팀 성적까지 좋지 않아 걱정은 더했다.

이 때, 광주 남기일 감독대행은 파비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재활 중에도 상담을 가지며 몸 상태를 완벽하게 끌어 올린 후 복귀하라는 말로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이후 파비오는 5월 25일 부천 FC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하며 그라운드에서 첫 발을 내밀었고, 이어진 5경기 동안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경기 감각을 익혔다.

점차 컨디션이 좋아지자 파비오는 자신의 존재감을 어김없이 발휘했다. 지난 17라운드 고양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교체 투입되어 2-2 동점 상황이던 후반 34분 결승골을 뽑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파비오가 7경기 만에 터트린 K리그 데뷔골이었다. 그동안 공격수로서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지만 득점을 통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흐름을 탄 파비오는 18라운드 안산 경찰청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후반전 교체 투입된 이후 2차례 유효 슈팅을 날리며 팀 공격에 중심에 섰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경기 이후 "앞으로도 파비오가 팀을 잘 이끌 것 같다"며 파비오를 치켜세웠다. 국내 적응을 마친 파비오의 본 모습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현재는 교체 출전하고 있지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 받게 되면 충분히 광주의 승패를 좌우할 실력자일 것임에 틀림 없다.



다가오는 여름은 그의 계절이 될 것인가? 계절 여름엔 선수 여름을 주목해야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광주의 숨은 에이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프로 데뷔한 여름은 특이한 이름만큼이나 주목 받는 실력으로 눈에 띄었다. 29경기에 출전하며 2골 1도움으로 알토란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하는 그의 플레이는 남기일 감독대행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올 시즌에도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를 땀겨운 여름은 개막전부터 선발 출전하며 3경기 연속 풀타임 기록을 이어갔다.

하지만 5월은 그에게 고독했다.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제외됐고, 광주는 여름이 없이 치른 4경기 중 3경기를 패하며 부진에 빠졌다. 중원에서 공수를 풀어줘야 하는 선수들의 활약이 미미했고 여름의 공백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이후 재활을 거쳐 5월 25일 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복귀한 여름은 답답하던 팀의 공백을 깔끔히 메웠다. 비록, 팀의 부진은 계속되긴 했으나 광주의 경기력 만큼은 달라졌다는 것이 보였다. 여름은 중원에서 과감한 돌파와 정확하고 날카로운 패싱력으로 공격을 도왔고, 수비 상황에서는 빠른 상황 판단력과 적극성으로 팀을 이끌었다.

지난 17라운드 고양과의 경기에서는 정확한 크로스로 파비오의 결승골을 도우며 올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마음의 짐까지 덜었다. 여름은 공격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에게 해결사 본능까지 가미된다면 광주는 더할 나위 없이 다가오는 여름을 도약의 계절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중원의 사령관 이찬동! 광주를 책임질 미래

지난 2월, 광주 FC는 2014시즌을 위해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광주는 베테랑 선수들의 대거 영입으로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이 중 광주의 앳된 얼굴로 보이는 신인 5인방이 설레는 표정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선수는 인터뷰 중 “프로라고 해서 기죽지 않는다. 상대에게 절대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가장 자신감 있는 소감을 드러냈다. 이 선수는 바로 이찬동이었다.

인천대를 나온 1993년생 이찬동은 신인 드래프트 2순위로 지명되어 올 시즌 광주에서 프로 무대를 경험하고 있다. 신인 선수가 프로 무대에 주전 자리를 꿰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찬동은 당당히 광주의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를 차지하며 올 시즌 리그(18라운드까지의 기준)에서 14경기에 출전했다. 활약상도 좋았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이찬동을 신임하며 그를 포백 수비라인의 바로 위쪽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했다. 이찬동은 180cm가 넘는 탄탄한 체격조건을 바탕으로 상대와의 강한 몸싸움을 벌이며 중원을 지배했다. 빠른 주력으로 상대 공격수들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차단했고, 거친 태클도 마다하지 않으며 투혼을

불살랐다. 또한, 팀의 공격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심점에 서며 짧은 패스 혹은 긴 패스로 공격의 유희유 같은 역할을 해냈다. 14경기 중 7차례를 풀타임으로 뛰며 신인다운 무한 체력도 과시했다.

이찬동은 이미 데뷔골까지 성공시키면서 기쁨도 맛봤다. 17라운드 고양 Hi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이 3-2로 앞서던 후반 41분 강력한 대포알 중거리 슈팅으로 고양의 골 망을 흔들었다. 올 시즌 광주가 기록한 득점 중 가장 시원한 골이었다. 한 번 골 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격포인트에 대한 욕심이 생길 법하지만, 이찬동은 오히려 팀 승리에 대한 갈망이 컸다. 더 나아가 팀을 위해 희생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신인다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이찬동에게 그럴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닌 팀을 위해 뛰고 있었다. 이찬동은 아직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고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주의 중원은 분명히 이찬동이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끌게 될 것이다.

광주의 싸움닭 이찬동,
“팀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요!”



이찬동 No. 40

1993.01.10 / 183cm, 80kg / MF (미드필더)
서귀포중 - 청주대성고 - 인천대
2014시즌 - 14경기 1골

Q. <광주 FC 월간 매거진> 4호 인터뷰 주인공으로 선정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주인공으로 선정될 줄 몰랐어요. 의외인 것 같네요. 기분이 좋고 영광이네요.(웃음)

Q. 최근 몸 상태는 어떠세요?

경기를 계속 뛰다 보니까 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픈데도 없고 좋아요.

Q. FA컵 16강 성남 FC와의 경기에서 패배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던 경기였는데 패배해 아쉬워요. 경기는 우리가 완전히 지배했지만 상대가 운이 좋았죠.

Q.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꾸준히 선발 출전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은데도 감독님께서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죠. 그만큼 제가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Q. 직접 프로 무대를 경험해보니 어떨까요?

광주엔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는 위로 1년 선배밖에 없어 어떤 거든 먼저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스타일을 바꿔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와 프로는 축구 스타일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Q. 이찬동 선수 경기를 보면 강한 몸 싸움이 돋보여요. 마치 '싸움닭'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지는 걸 싫어해요. 지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데, 장점이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웃음)

Q. 평소 성격도 경기장 내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슷하나요?

평소에는 안 그러죠.(웃음) 경기 때만 그런 것 같아요.

Q. 포백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 공격을 1선에서 저지하고 있어요.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쉽고 빠르게 공격 진영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려고 하고, 수비를 타이트하게 하죠. 화려한 패스나 침투 패스보다는 선수들에게 연결해주고 전환해주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죠.

Q. 올 시즌 4월말에는 부상을 당했었어요. 당시에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무릎을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었죠. 제가 걱정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다시 준비만 열심히 했죠. 어렸을 때는 친구들끼리 대학 진학을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편안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요?(웃음) 그냥 편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즐겼죠. 그래도 최근에는 경기 나서는 것에 비해 많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Q.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17라운드 고양과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으셨어요.

원래 멀리서 슈팅을 잘 때리지 않거든요. 제가 볼을 잡고 있었을 때, 파비오가 사이드에서 "찬동! 찬동!" 이러면서 패스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패스를 주다가 차단될 바에는 슈팅을 때려 정리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슈팅을 때리고 살짝 빗 맞았는데, 아웃 프런트에 걸렸죠.(웃음)

Q. 슈팅을 때렸을 때 흔히 말하는 골이라는 감이 왔나요?

감은 잘 모르겠는데, 볼이 휘어져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어? 골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들어가서 너무 좋았죠.(웃음)

Q. 골 넣고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원래 골을 넣으면 감독님께 먼저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벤치 쪽으로 바로 달려가서 처음에는 선수들에게 축하를 받고, 감독님과 안았죠.

Q. 데뷔골을 넣은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예전보다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정)준언이 형이 이런 슈팅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축하해줬어요. 제 축구 인생에 최고의 골이죠.

Q. 과거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충북 음성에 살았는데 동네에 두 살 많은 형이 경기도 군포로 축구를 하러 갔어요. 그 형 아버님께서 제가 달리기 빠르니까 축구를 해 볼 생각이 있냐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죠. 초등학교 2학년 겨울에 테스트를 보고, 2001년 3월에 경기도 군포로 전학을 가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틀 동안 밤에 자

면서 엄청 울었어요.(웃음)

Q. 힘들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집에 내려가면 항상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어요. 힘들었죠. 평일엔 매일 운동하고 집 가서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일요일에 올라와 월요일 새벽 운동했죠. 당시 부모님께 고생 좀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도 제가 프로에 오니까 경기도 많이 보러 오시고 좋아하시죠.

Q. 이 자리를 빌어 부모님께 한 마디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Q. 연령별 대표팀에 소집된 기억이 있으신가요?

중학교 1학년 때, 50명 정도의 선수들이 소집됐는데 쇄골이 부러지는 바람에 가지 못했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1월쯤 다시 소집되어 연습경기 때 2도움을 올리면서 잘했어요. 중학교 감독님 말씀으로는 최종으로 뽑혔다고 하셨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도 고등학교 때 아시아 학생 대표로 나가 국제대회도 다녀와 자신감이 붙었죠. 그리고 인천대 3학년 춘계 대회 때 20세 월드컵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어떤 분이 저를 불러 온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원래 누가 불러오면 더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 날 따라 긴장이 되면서 플레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후 슬럼프에 빠지면서 잘 하지 못했어요. 많이 아쉬웠죠.

Q. 인천대 이후 광주에 합류하셨어요. 기분이 어땠나요?

엄청 좋았어요. 드래프트를 실시간 문자 중계로 봤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광주 2순위 이찬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너무 좋아했고 정말 감사했죠.

Q. 올 시즌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공격포인트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상대의 볼을 빼앗고 몸 싸움을 하면서 희생하고 싶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도 나가 클래식으로 승격할 수 있게 도전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Q.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싸움닭'으로 기억되고 싶어요.(웃음)

2014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기일 감독대행	김영철 수석코치	카를로스 피지컬코치	알베스 GK 코치	주치의 이준영	GK 제종현	GK 백민철	GK 류원우	DF 정준연
								
DF 전준형	DF 최성환	DF 이완	DF 마철준	DF 김영빈	DF 이종민	DF 박진욱	DF 오도현	DF 정호정
								
MF 여름	MF 김민수	MF 김유성	MF 김우철	MF 권수현	MF 송승민	MF 홍대근	MF 조용태	MF 김태연
							그리고 광주FC를 응원하는 여러분이 바로 12번째 선수입니다!	
MF 박현	MF 이찬동	FW 임선영	FW 파비오	FW 김호남	FW 안종훈	FW 디에고		

2014시즌 홈 경기 일정

07월 19일(토) 19:00		VS 수원 FC	09월 13일(토) 19:00		VS 고양 Hi FC
07월 27일(일) 19:00		VS 부천 FC	09월 28일(일) 14:00		VS FC 안양
08월 16일(토) 19:00		VS 충주 험멜	10월 11일(토) 14:00		VS 대구 FC
08월 31일(일) 19:00		VS 강원 FC	10월 25일(토) 14:00		VS 대전 시티즌
09월 06일(토) 19:00		VS 안산 경찰청			

광주 FC 많이
응원해 주세요!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발행일 2014년 07월 18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동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허회원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o)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